

주안에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6
Jun. 2016
Vol.4 No.6

- 교회뉴스 • 채플소식
- 교리학교 / 양육훈련
- 주안에만남
- 교육부 / 간증 / 칼럼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Valley 818.363.5887 . LA 213.232.3163 . Fullerton 657.217.5558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 2016 VBS

2016년 VBS가 6월 17-18일 양일간 밸리와 엘 에이 두 채플 아이들이 모여 밸리채플에서 그리고 6월 24-25일은 플러튼채플에서 Lock-In 방식으로 Sleep over 로 이루어졌다.

"세상의 빛이 되자" (We light up the world)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VBS는 Jacob Cho 전 도사를 초청하여 첫날에 "HOPE", 둘째날엔

너희는
세상의



"POWER" 라는 주제로 아이들의 영의 양식을 충분히 배부르게 채워 주셨다.

VBS하면 역시 아이들의 찬양과 율동이다. 큰 아이, 작은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일어나 기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함께 드려지는 아이들의 율동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하나님 보셨지요, 들으셨지요!

또한 소그룹별로 진행된 첫번째(첫째날) 액티비티(Activity) 때엔 조그만 박스를 장식하고 그 안에 넣을 예수님께 편지를 쓰는 시간이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는 이 시간동안 아이들은 또한번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그 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분께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순간으로, 또 그걸 예수님께 드릴 편지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다. <6면에 계속>

| 박희정 기자 |



■ 작심삼일 특별새벽예배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

지난 4월에 했던 작심삼일 새벽기도회는 특별히 항존직 직분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전교인을 대상으로 작심삼일 특별새벽기도회를 갖게 되었다.

6월 6일~8일까지 밸리채플을 시작으로, 6월 9일~11일까지 플러튼채플 그리고 6월 13일~15일까지 LA채플에서 기도회는 계속 이어졌다.

올 한해 특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주님의 뜻에 따라 주안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새벽부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이번 기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말씀에 하루를 시작할 큰 힘과 은혜를 받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최혁 담임목사는 첫째 날 사무엘상 8장 10절~22절 말씀을 통해 '뜻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4가지의 일반적인 기도 응답 외에 5번째 기도 응답에 대해 자세하게 강론하고 모든 기도의 응답은 '아버지의 뜻'에 달려 있음을 강조했다. 둘째 날은 삼상 9:1~10절 말씀을 가지고



'사울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고 또 경청하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크게 사용하심을 설교했다. 마지막 셋째 날은 삼상 9장 11~17절 말씀 '섭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끊임없는 상실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임을 깨닫게 해 주었다.

다른 때와 사뭇 다르게 3개 채플 모두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함께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에서 최혁 담임목사

는 이번 특별새벽기도회가 끝나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켜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안예교회는 아버지의 방법으로, 그 분의 의도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져가고 우리는 각기 맡은 자리를 잘 지켜 선하고 겸손한 도구로 쓰임 받는 종임을 잊지 않고 나아가야겠다. | 오병순 기자 |

■ 주안예삶 예비훈련

6주동안 믿음과 풍성한 은혜의 삶 체험

평신도 필수 양육과정인 '주안예삶' (1,2,3권 각 6주 과정)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6월 11일(토) 오후 4시 플러튼채플에서, 6월 12일(주일) 오후 3시 밸리채플에서 각각 열렸다.

주안예교회 성도는 누구나 이수해야 하는 주안예삶은 올해 벌써 두 번째 열리는 기회로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였는데, 이번 OT를 통하여 앞으로 6주 동안 어떻게 공부하게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 받았다.

박현동 목사는 시편 119:97을 통하여 '더 깊은 사랑의 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과 같은 곳에 거하게 되고 세상과는 자연히 멀어지게 되므로, 한 주 한 주 더 깊은 사랑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권면했



다. 이어서 양국민 전도사의 주안예삶의 목적과 훈련 지침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각 권별 인도자 소개와 테이블 미팅이 이어졌다.

이번 주안예삶 9기를 통하여 참여하신 성도님

들의 믿음과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어질 10기, 11기에도 많은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 체육국 소식/야구팀

꾸준한 연습과 실전, 2부 리그로 진입



가람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지난 6월 11일(토) 오전 10시, Cerritos 소재 Gahr 고등학교 야구장에서 우리 주안예교회 야구팀의 리그 등 진입을 위한 평가전이 치러졌다.

야구팀의 오랜 희망이었던 리그 진입을 위해 그동안 열심히 연습을 해 왔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해 두 팀으로 나누어 연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야구에 대한 팀장(김진경 집사)과 감독(오철호 집사) 그리고 전문가다운 코치(한대일 전도사)의 열정 아래 드디어 준수한 실력을 가진 2부 리그팀과 한판 승부를 겨루었다.

2회 초, 아직 몸이 덜 풀리고 처음 치르는 경기여서인지 대량 실점을 했지만 곧바로 이어진 2회 말부터 착실히 점수를 만회, 결과는 15대 14로 한 점 차 아까운 패배. 그러나 승리나 다름없는 귀중한 경기였다.

이제 조만간 2부 리그에 진입하게 되면 더욱 흥미진진한 승리의 소식을 많이 전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그동안 쉬었던 분들이나 야구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문의: 김진경 집사 / 949-910-3509)

■ 교리학교

신앙의 바른 토대 위 리더들의 품성훈련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등 항존직과 사역국장, 팀장 및 교구장, 구역장, 부구역장 등 교회 리더들을 위한 교리학교가 매월 둘째 주일에는 LA채플에서 셋째주에는 플러튼채플, 넷째 주일에는 벨리채플에서 개설되도록 결정되었는데 지난 6월 12일 주일 오후 2시 LA채플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최혁 담임목사님의 강의로 진행되는 본 교리학교는 앞으로 교회의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 한다. 주안에교회 사역훈련은 교리학교 50주 과정에 이어 교회론 강좌와 2년 코스의 리더십 교육이 있게 될 것인데 이 사역훈련은 제자훈련과 병행하여 교회의 뼈대를 세우고, 교리학교는 신앙의 토대를 세워 리더들의 신앙과 품성을 향상시켜 평신도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성경은 4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을 받아 기록된 것이고 교리는 성경에 나온 진리들을 체계적 조직으로 표준화한 것인



데 교리가 정립되면 성경 말씀의 해석이 용이하고 이단 판단이 가능해져 교회에 이단침투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교리는 교회의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교리는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교리의 옳고 그름은 성경에 의해 검증되어 진다. 교리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불완전한 이성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시대와 장소에 따라 수정 보완될 수 있다.

과거 로마제국이 번창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로마의 리더십교육 곧 하리교육을 잘 시켜 장교들은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어떤 위기가 닥칠 때는 똑같은 생각, 똑같은 결정으로 위기를 타개하도록 교육시켰다. 다시 말해 같은 생각을 공유케 하는 소통교육을 통하여 최고 리더와 같은 생각, 같은 색깔의 그림

을 그리도록 교육 시켰기 때문이라 한다. 주안에교회 리더들이 지난 3년동안 담임목사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므로 오늘의 주안에 교회가 이룩된 것을 감사하며 다시 오는 3년, 30년, 300년까지도 주안에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에 교리학교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최혁 담임목사님의 당부가 있었다.

| 나형철 기자 |

■ 멕시코 단기선교

까말루 주민들에 사랑과 봉사의 손길을

오는 7월에 있을 멕시코 단기선교 준비 모임이 지난 6월 12일 벨리채플 101실에서 있었다. 이날 이방길 장로등 많은 준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준비모임은 윤종화 장로의 기도로 시작되어 현지의 여건을 고려한 차량, 숙박, 전도, 구제, 현지선교, 의료, 건축, VBS, 미용, 주방봉사 등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을 나누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있을 멕시코 단기선교는 까말루지역에서 펼쳐질 예정으로 오는 7월 17일 12시 출발하여 3박 4일 선교를 마치고 7월 20일에 돌아올 예정이며, 전도팀(팀장: 조웅대장로), 구제팀(팀장: 김경일장로), 건축팀(팀장: 윤종화 장로), 의료팀(팀장: 이복희권사), 미용팀(팀장: 이해령 권사), 식사팀(팀장: 이인범 장로), VBS(팀장: 나형철 장로) 등 7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멕시코 단기선교 사역은 320 miles의 거리를 Bus로 이동할 예정으로 인디오 지역등의 야외사역의 목회자를 위한 Tent 등의 장비를 대여 할 예정이다.

이번 선교의 여정엔 교육부도 합류할 예정으로 농장방문 전도, 내륙지역의 주일학교 설치, 현지선교사 육성, VBS등의 전도와 현지 선교사 위주로 하게 되며, 나누어 주기식 구제, 한

의사, 약사, 간호사, 의사등의 의료팀이 합류하는 의료선교, 건축팀의 Solar System & dry wall 설치하는 건축선교, 미용팀의 Nail Art, 사진등 미용봉사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back pack 200개 등 학용품이 필요하여 주안의 교회 성도들의 많은 관심을 기다리고 있다.

물품과 현금 도네이션은 항상 환영이며 단기선교 훈련 일정은 7월10일 (주일) 오후 4시 LA 채플과 7월 16일 (토요일) 오후 6시 벨리채플 식당으로 두번에 걸쳐 있을 예정이다.

현재까지 40명이 등록된 상태로 예상되는 선교 인원은 70 명정도이며 더 많은 주안에교회 교인이 참석하여 은혜의 잔치에 동참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다.

이 밖의 문의사항은 이방길 장로(213-407-4007)에게 문의바란다. | 박창신 기자 |

JULY

7월 목회계획표

MINISTRY CALENDAR

<p style="background-color: #333; color: white; padding: 2px;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5px;">목회부</p> <p>7/1(금) 교구/구역장 모임(벨리채플)</p> <p>7/7(목) 교구/구역장 모임(LA채플)</p> <p>7/10(주일) 항존직/리더 교리학교(LA채플)/구역모임(플러튼채플)</p> <p>7/17(주일) 구역모임(벨리/LA채플), 항존직/리더 교리학교(플러튼채플)</p> <p>7/24(주일) 항존직/리더 교리학교(벨리채플)</p> <p>7/31(주일) 창립3주년 감사예배</p>	<p style="background-color: #333; color: white; padding: 2px;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5px;">교육부</p> <p>7/3(주일) 교육국 모임(LA채플)</p> <p>7/10(주일) 교육국 모임(벨리채플)</p> <p>7/17(주일) 교사감사주일</p> <p>7/24(주일) 졸업예배/교육국 모임(플러튼 채플)</p> <p>7/25(월)-7/28(목) Youth Summer Retreat</p>
--	---



■ 주안에 만남(벨리채플)



무더졌던 믿음, 말씀으로 새롭게... 끝없는 은혜 간증

지난 6월 5일 벨리채플에서 주안에 만남이 있었다. 주안의 만남이 늘 그렇듯이 참석자 만큼이나 많은 봉사자들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태신자들을 섬겼다.

이번 모임은 이전 모임들과 조금 다른 것이 주안에 교회가 창립하면서 3년을 같이 했던 집사님 가정을 포함 오래 전부터 교회에 출석 하셨던 권사님까지 새삼스럽다 싶지만 주안에 만남에는 한번도 참석하지 않아 궁금한 마음에 자리를 함께 했다고 하면서 즐거워 했다. 벌써 일년 전부터 벨리채플에 출석하고 계셨던 권사님은 친구분들과 함께 동석했다며 즐거워 하셨다.

우연히 손에 잡힌 설교CD로 무더졌던 신앙 심에 작은 빛이 새어들어와 삶이 새로워졌다고 고백하시는 분, 30년 넘는 결혼생활에 여전히 내 배우자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다는 부부는 아내와 마음까지 같이 할 수 있어 더욱 행복하다는 남편, 너무나 사랑스러운 남편을 향한 유일한 걱정거리 "저 양반과 전국까지 같이 갈 수 있을까" 걱정아닌 걱정을 했는데 이제 전혀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이전 전국에서도 여전히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 더 사랑하며 살겠다는 간증은 옆사람까지도 미소짓게 만들었다.

이렇게 4대에 걸친 기독교 집안인 것과 상관 없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 주셨다는것이 실감나지 않다고 하는 분과 이제 일년도 안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전의 삶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즐거워 하시는 분까지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결국은 태초부터 나를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공통점은 한결같았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부터 지금 이순간까지 한결같이 같은 내용이지만 새로울 것 없는 빛이 프리즈마를 통과하면서 찬란한 무지개빛으로 눈을 즐겁게 하듯이 할머니의 할머니가 읽던 그 새로



울 거 하나 없는 성경말씀이 최혁목사님의 설교를 듣다보면 이전과 전혀 다른 과장으로 마음을 흔들며 더욱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참석자 대부분이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다.

모임을 지켜보면서 계속 마음에 울리는 생각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거나 했다. 혼자서 그런거보다, 그랬거나로 끝났을 이야기들이 함께 모여 나누면서 내 마음의 울림이 옆사람에게 전해지고 옆사람의

감동이 나의 감동이 되고 간혹 오래되고 익숙해져서 굳살이 박힌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눈가를 촉촉히 만들며 새삼 하나님을 향한 익숙해져버린 사랑을 고백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날의 모임은 불과 2시간정도에 그쳤지만 오래도록 나의 마음에 그 분들의 마음에 남아 앞으로 닥칠 또 다른 시련과 역경을 조금은 수월하게 만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채은영 기자 |

■ VBS

하나님 집에서 1박2일... 행복한 동심

〈1면서 계속〉 그리고 나서 아이들 모두가 모여 불을 끄고 조그만 촛불(flameless candle)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처절하도록 아름다운 그 나무 십자가 위에 하나씩 하나씩 아이들은 촛불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둘쨀날 이루어진 액티비티엔 슬라미(Slime)를 직접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그냥 하나만 있을텐 아무 힘도,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필요한 요소들을 첨가할 때마다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 분이 주신 힘으로 우리들은 바뀔 수 있다는것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플래쉬 라이트, 컴퍼스 그리고 두들(Doddle) 액티비티를 하면서 예수님의 파워(flash light battery)가 들어가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고, 길을 잃어서 갈 곳 몰라 우리가 헤매 때 컴퍼스가 있으면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듯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가야하는 인생의 바른길이라는 것을 아이들은 다시한번 배웠다. 또한 두들 타임(doodle time) 엔 아이들은 우리의 모양이나 생각 모두가 가지각색 따로 따로지만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해 스페셜 플랜을 가지고 있고 결국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그분의 계획대로 아름답게 빛신다는 내용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바쁘게 아이들이 여러가지를 배우르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적으로 채워갈 때 한편 교회 주방에서는 그 예쁜 아이들을 육적으로 먹이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더운 날씨에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번 VBS의 절대 매력(?)인 Sleepover 시간이 되자 평소엔 엄마와 떨어지지 않겠다고 울며 불며 떼쓰던 어린 아이들이 그날 밤엔 엄마와 떨어지겠다고 울며 불며 떼를 써 부모님이 안고 억지로 데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긴 VBS의 첫 하루의 마무리를 웃음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자는 첫날 밤이 너무 설레고 행복해 아이들은 한동안을 이런 저런 얘기들 몇마디씩을 나누다가 주님이 주신 단잠으로 그들의 긴 하루를 마무리했다.

각자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활동하고 자고 했던 아이들이 시온,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서로 온전히 한 가족으로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살았던 VBS의 하루였다.

다음세대 (Next Generation)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이 이번 VBS를 통하여 한층 더 주님과 가까워졌기를...주님이 주신 희망 (Hope)과 힘 (Power)을 가지고 이 땅의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반짝 반짝 작은 빛



이 세상을 환하게!



■ 주안에라이프

12주가 금방 지나... 아쉬움 속 격려와 감사



지난 6월1일, 12주 동안 진행되어오던 주안에 라이프가 어느새 마지막시간이 되어, 아쉽지만 뱅트를 통해 은혜롭게 마치는 시간을 가졌다.

오토하프를 비롯해 건강댄스, 스트레칭, 컴퓨터, 기타, 뜨개질등.. 여러가지 다양한 클래스를 통해 그동안 열심히 배운 것들을 발표하

고 서로 격려하며 큰 박수를 보내주는 훈훈한 시간이었다.

홍보가 조금 늦어졌지만 이번기에도 많은 주안에교회 성도님들과 주변에 사시는 어르신들께서 열심히 참여하시어 뜨거운 배움의 열기를 보여 주셨고, 섬기기를 즐겨하는 팀장 김재주 집사, 이미란 전도사, 그리고 식사를 위

한 주방봉사자들, 각그룹의 강사들, 스태프들 모두 한 마음 되어 주를 섬기듯 어르신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해를 거듭할수록 주안에교회가 주안에 라이프를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는 모습이 보기에 너무 좋았다. 다음 기회에는 또 어떤 과정을 통해 어르신들을 섬기게 될지 기대되어진다. | 오병순 기자 |

■ 문서국 모임

‘교회를 하나 되게’ 함께 만드는 소식지

6월5일 주일 오후 문서국 상반기 정기모임이 있었다. 생활전선에서 치열한 일주일을 보내고 길지않은 주일, 다들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틈에 글로 서로 인사를 나누던 문서국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함께 나누며 그간의 수고를 서로 격려하고 어설피름에 움추려들던 마음을 서로 위로하는 유익한 시간이였다.

누구는 눈길 한번 안주고 지나치는 소식지일수도 있고 전문가 눈에는 너무나 어설피름 글이라 하겠지만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하면서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달 빠지지 않고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문서국이다. 문서국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특별히 글쓰는 것이 행복하거나 글이 술술 써져서 봉사하는 것은 아니다. 몇줄의 글을 쓰려고 반나절이상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하고 사진 몇장짜지고 밸리에서 플러튼, 플러튼에서 LA로 동에서 번쩍서에서 번쩍 날아다니나 싶게 동봉서주해야 하지만 맡겨진 일이라, 사람이 시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는 생각에 시간을 조개고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있다.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하니 즐거워서 음식도 덩달아 맛있었다고 말해야겠다. 식

사를 마치고 다음호 기사를 분담하며 분발하자며 잊지 않고 서로를 격려했다. 또한 지난 실수나 허술했던 점들을 나누며 보강하자 다짐하고 앞으로 어떻게 성도들이 기다리는 유익하고 즐거운 소식지를 만들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았다.



세상에서는 능력있는 사람을 더 많은 기회를 주어 더욱 빛나게 만들고 독보적이라는 말이 칭찬일 수 있지만 교회에서의 봉사는 좀 다른 것 같다. 능력있는 사람은 한발 뒤로 물러나 뒤에서 보좌하며 머리를 숙이고 부족한 사람은 서로 의지하여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서로의 능력을 배가시키며 함께 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임은 항상 행복은 배가되고 슬픔은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느낀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모임에 동석해주신 최혁담임목사님은 긴말보다는 자리를 함께 해주어서, 눈을 마주치고 서로 우스개소리를 나누는 것 만으로도 응원이 되었다. 모르고 계실 줄 알았던 이야기들을 알아주고 기도해주고 계셨다는게 감사했고 더욱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다.

목사님이 가고자 하는 길을 함께 바라보게 되었고 우리의 염려와 바라는 것을 목사님이 마음에 담아 함께 만들어가고자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되었다. 교회는 그렇게 여럿이 한곳을 바라보며 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정답인 것 같다. 세상과 교회가 달라야 한다. 능력있는 한 사람을 다른 여럿이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 여럿이 한 곳을 향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만들어 가는 그림이 바로 교회, 하나님의 몸인 것이다. 문서국 일이 그렇다. 글재주가 좋은 한두 사람이 멋지게 만들기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마음을 다해 세 곳으로 나누어 있는 물리적인 교회를 하나로 묶어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서국의 봉사자들의 자부심이 되어준다.

| 채은영 기자 |

■ 5교구(플러튼채플)

넉넉한 마음, 배려에 행복감이

6월 둘째 주일날은 5교구가 합동으로 공원에서 구역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취재 관계로 무조건 따라 나섰습니다.

세리토스에 있는 아담한 공원이었습니다. 탕자에 대한 설교를 듣고 와 서인지는 몰라도 일찍 오셔서 구역원들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김영기 장로님의 모습에서 집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희생의 모습을, 그리고 푸짐한 삼겹살에, 콩나물국이 식을까봐 가스 불에 올려놓고 바람과 싸우는 김영희 권사님에게서는 어머니의 아름다운 헌신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무슨 일입니까? 오시는 가정마다 음식을 산더미처럼, 네, 정말로 산더미처럼 싸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공원의 그 큰 상이 모자라 하나를 더 써야만 되었습니다. 구역예배 때면 특별한 말이 없어도 모두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음식을 해오고, 음식을 모아놓고 보면 이렇게 총천연색의 잔치 상이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렇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구입니다. “역지로 하겠습니까? 좋으니까, 하고 싶으니까 하지요.” 라는 윤혜수 2구역장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역장님 내외분은 술선수범하십니다. 궂은 일에 앞장서시며, 행동



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라는 정은영 권사님의 구역장 칭찬을 듣고 있던 1구역의 김현웅, 오은희 집사님 부부가 바로 자신들의 구역장 이신 김종성, 연희 집사님 내외분의 칭찬에 열을 올립니다. “저희 구역장님은 음식 솜씨가 주안예교회 넘버원입니다. 특히 김영희 집사님의 아름다운 배려와 희생, 김종성 집사님의 겸손과 사랑 넘치는 섬김은 모두의 귀감입니다.” 이 교구는 주안예교회의 축소판입니다. 먼저는 봉사의 베테랑들만 모였습니다.

주안예교회의 대들보로 밤낮으로 교회를 위해 뛰시는 김영기 장로님 내외분을 필두로, 교회의 얼굴마담이신 예배부장 김종성 집사님, 지휘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성가대를 이끄시는 박선우, 성원 집사님 부부, 성가대 총무 윤영섭 집사님 부부, 주차 봉사하시는 임현석 집사님, 초창기부터 식당봉사를 맡없이 감당하고 있는 정재오 집사님들이 5교구원입니다.

다음은 마하나임 성가대의 주역들입니다. 대장님, 지휘자님, 총무님이 모두 이 교구인데다 테너와 소프라노의 주역이신 조 자슈아, 주디 집사님 내외분도 이 교구원이십니다.

게다가 정 집사님 내외분은 최 목사님께서 개척해서 십년 가까이 섬기시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음식 솜씨도 말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김영희 권사님을 비롯해 지휘자 부부, 김영희 집사님 등은 평판이 자자한 요리와 대접의 대가들이십니다. 김영희 권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주 같은 달란트들을 다이아몬드처럼 값지게 쓰시며 봉사하시는 교구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60평생의 교회생활 가운데 지금이 최고로 행복합니다.” 라며 김영희 권사님을 비롯해 지휘자 부부, 김영희 집사님 등은 평판이 자자한 요리와 대접의 대가들이십니다. 김영희 권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주 같은 달란트들을 다이아몬드처럼 값지게 쓰

■ 1교구(밸리채플)

교구·구역장들 아름다운 섬김

분향을 향하는 순례자의 심정으로 밸리채플을 찾아 넘어오는 1교구 성도들은 라크라센타와 라카나다에 거주하시는 식구들이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우니에서 주안예교회가 개척할 당시부터 함께 하였다고 하니 그 열심은 더 이상 설명해서 무엇하랴.

김진석 장로와 김선자 권사께서 교구장으로 13가정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으며, 1구역장인 정진복 집사는 재정부에서, 2구역장인 이원근 집사는 주차봉사, 3구역장인 김진경 집사는 교육부에서 땀 흘려 봉사하고 있으며, 교구장님을 닮아 말없이 묵묵하게, 얼굴만 보아도 겸손한 모습으로 구역을 이끌어가고 있다.

1구역장으로 수고하고 있는 정진복 집사/ 정유정 집사 부부는, 모든 구역식구들의 전폭적이고 끊임없는 기도 덕분에, 부족하지만 구역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소감을 이야기 하면서, 최근에 구역원인 남정순집사의 대 수술후에 모든 구역식구가 함께 열심히 기도함으로 기대 이상으로 집사님이 빨리 완쾌되어 모든 구역원들이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렸다고 한다.

2구역은 이원근 집사/ 이명주 집사가 섬기고 있는데, 항상 밝은



미소로 주차봉사를 하던 이원근 집사의 몇 달간 한국 방문으로 인해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만, 10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도 온 구역식구들이 총동원하여 이원근 집사의 빈자리를 채우기에 소홀히 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맡은 일에 충성하며 분을 보이는 2구역원 모두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러우며 또 고맙게 느껴진다.

3구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서로 눈빛만 보아도 필요를 알고 채우며 함께 기도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구역 식구들! 우리는 사랑과 감사로 채워진 가족입니다” 라고 밝혔는데, 30대의 젊은 구역장인 김진경 집사/ 제니퍼 장 집사가 열심히 섬기고 있다.

이렇게 교구장 부부를 포함하여 3개 구역에서 겸손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구역장과 모든 구역원들이, 묵묵히 교회 곳곳에서 땀 흘려 봉사하며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밸리채플 1교구에 넉넉히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계획하시는 일들이 1교구를 통하여 창대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드립니다. | 김신실 기자 |

시며 봉사하시는 교구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60평생의 교회생활 가운데 지금이 최고로 행복합니다.” 라며 구역장들과 구역원들이 너무도 열심히 봉사를 해주셔서 교구장으로서 할 일이 없어 걱정이라며 웃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모습이고, 최 목사님께서 주안에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꿈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 뇌리에는 계속 ‘초대교회’란 말이 떠올랐습니다. | 조성운 기자 |

■ 주안예말씀 간증

18주,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먼저, 성경통독을 할 수 있는 18주간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마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끄럽지만 정말 오래간만에 시간을 정해두고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주일학교때는 성경을 읽어가면 선생님께서 스티커를 붙여 주시고 다 끝나면 주시던 상품을 기대하며 읽었을 때가 있었고 자라면서는 읽기는 읽었지만 시간이 흐르만큼 게으름도 늘어서 내가 읽고싶을 때, 내가 읽고 싶은 곳을 마음 가는 대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해서 어느 날은 아주 큰 다짐을 하고 성경을 한 번 써 보리라 겁도 없이 시도도 했지만 결국 누가복음에서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 당시 내 계획은 내게 아들이 둘이니 성경을 두 번 써서 아이들에게 한 권씩 주리라는 큰 꿈, 어쩌면 교만이 아니었나 합니다. 소감문을 쓰면서 지난 날의 내 말씀에 대한 자세의 기억을 더듬어보니 참으로 널 뒤틀듯이 이 모양 저 모양이었구나 싶습니다. 때로는 은혜가운데 정독하기도 하는 등 돌아켜보면 내 신앙생활의 모습과 성경읽기도 참 많



최정화 집사
(벨리체플)



이 많았구나 싶습니다. 물론 다룰 수가 없겠지요. 말씀처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몸도 가고 생각도 가고 나의 많은 시간도 쏟았을 것이니 말입니다.

성경통독을 하면서 지나간 제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때 아직도 마냥 어린아이같은 신앙에 우습기도하고 회개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배우는 것, 교육받는 것은 좋아해서 성경공부가 있다고 하면 나를 열심히 참여하며 그 시간동안에는 성경도 열심히 보고 은혜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주안예교회의 평사원 과정중에 성경통독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더 솔직히 얘기하면 하고 싶지 않은 과정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요리조리 피하고 계속 미루기만 하던 중 다음 과정을 하기위해서는 성경통독과정을 마쳐야한다고 해서 우스운 얘기지만 오기로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면서도 18주의 시간이 부담스럽기도하고 함께 모여 소리내어 성경을 20장씩 읽는다는 것도 왜 그렇게 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도 들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읽으면서 지난 날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던 하지만 어느새 있었던 말씀들이 또 지난 날에 내가 밀줄 그어 두었던 말씀들이 눈에 들어올때면 그때의 기쁨과 시간들이 생각나기도하고 그 말씀을 외우면서 받았던 은혜가 생각나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있었던 말씀에 대한 내 첫사랑이 회복되는 듯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어도 흘러갔을 18주의 시간을 성경을 읽으면서 보내게 되었고 말씀을 생각하고 기대하며 기쁨에 더하여 거룩한 부담으로 긴장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 운동회 감사예배 간증

내가 목격한 하나님의 섭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 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눅 1장 1-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는 말씀의 목격자로 그 곳에 있었지만 저는 운동회의 목격자로, 처음 운동회가 시작될 때부터 마지막 모두가 자리를 떠난 그 시간까지 지켜보았고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또한 우리에게 친히 보여 주신 것을 목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장경출 집사
(플러튼체플)

첫 모임을 가질 때부터 저에겐 은혜가 있었고 모이신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사역자님들과 밤 늦도록 이어지는 여러가지 준비 모임 토의 속에도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보여주신 장로님들의 리더십도 언급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의견에도 충돌 없이 세세한 것까지 생각나게 하였고 준비하게 하였고 저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노랗게 익은 붕어빵 속에도 어느 가게에서도 그런 비주얼을 보지 못한 볼그름이 잘 익은 핫도그 속에서도,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 하나하나에 묻어 있는 그분의 소중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게임을 진행해 보는 것이기에 다소 미숙하고 불상사도 있을 법했는데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연습을 했길래 모두가 그렇게 프로처럼 잘 하시던지.. 시간까지 맞추어 가면서 매 게임마다 흥미를 더 해 주셨습니다. 틈틈히 준비한 학생들의 율동도 권사님 집사님들의 라인댄스도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사역자까지 한데 어우러져 다소 어색한 몸동작으로 추는 그 막춤도 너무나 정겹고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북과 장구 각종 소품까지 준비하여 열심히 응원하는 각 팀들과 선수 한명한명 소속팀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뛰는 그 모습도, 어느 집사님의 줄다리기틀을 너무 과하게 힘주다 털썩 엉덩방아 찍던 그 모습도 아직도 뇌리에 남아 웃음짓게 합니다.

세 체플이 하나되어 나누는 기쁨, 음식을 나누고 팀을 만들어 내가 우리가 되고 우리가 모두 되었던 소중한 만남 운동회가 주는 유익함이 이런게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왜 이런 자리를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매 순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 수 있는 저에겐 너무 잊을 수 없는 시간을 하나님이 기념으로 주셨습니다.

세리토스에서 벨리를 오가며 주신 하나님과 교제의 그 시간도 빼놓으면 안될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운동회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노' 라고 하지 않고 '예스' 하고 가야 한다 입니다. 내가 만약 그곳에 없었으면 누군가에게 그자리를 주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맞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누가도 역사의 현장에서 보았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있는 사실을 썼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단 한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쓴 글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주인공이 되었던 말입니다. 그 주어진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기뻐하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남들은 아무도 저에게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더니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동행하자 라고 말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운동회 감사예배

3개채플 하나된 감동 · 기쁨, 하나님 은혜 감사

지난 5월 28일 Pasadena Brookside Park에서 열린 제1회 주안예교회 운동회에 대한 감사예배를 6월 9일 목요일 LA채플에서 주안예교회 3개채플 교인들이 함께 모여 드렸습니다. 이번 운동회는 주안예교회가 가진 3개채플 전교인 행사였으며 하나의 목표로 성공적인 축제였던 관계로 감사예배에 참석한 교인들 모두가 운동회 당일의 감동과 기쁨을 다시 느끼는 자리였습니다.

찬양팀의 인도로 은혜로운 찬양을 부른 후 최혁 목사님의 기도가 있는 다음 조용대 장로님과 장경출 집사님의 간증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용대 장로님은 지난 해 멕시코 단기선교 때 우리 주안예교회가 한마음으로 뭉치고 일사분란하게 협력하여 은혜로운 선교활동을 할 수 있었고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때의 감명으로 이번 운동회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을 확신하고 운동회를 기다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기대한대로 3개채플이 하나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 운동회가 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이 기대와 기도로 준비한 열정 때문이었다고 믿었으며 지휘관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듯 이번 운동회를 기획하고 준비하며 진행한 리더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회의 리더이신 예수님의 뜻 안



에서 교회를 사랑하며 모든 교회 행사가 성공적일 것이라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장경출 집사님은 녹 1장 1-4절에 모든 일에 대한 목격자가 있듯이 장집사님 자신이 이번 운동회의 목격자로서 운동회 당일과 모든 준비모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운동회 준비를 위한 리더들의 협동과 열정, 당일의 모든 순서 진행이 물 흐르듯 잘 됐고 선수와 응원에서 아름다운 장면들을 볼 수 있었고 세 채플이 하나가 되는 사랑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운동회를 주신 뜻을 알 수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이면 항상 “예스” 라 하고 작은 일이나 큰 일에도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시게 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끝으로 최혁 담임목사님의 감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운동회 전 한달반동안 교인들이 운동회를 통하여 정을 나누고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함께 참석한 모든 교인들, 리더들에게 깊은 사랑과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운동회를 통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교인들의 열성에 보답하고자 오는 10월에 전교인 합동 야외예배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예배장비가 갖춰지고 성가대와 찬양을 하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것이라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모든 행사 후 감사예배를 드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 나형철 기자 |

■ 소그룹 모임을 위한 쿠킹 아이디어

재료 1. 냉면사리

2. 육수재료: 소고기 양지머리 1 ½ 파운드, 사골 1 ½ 파운드, 양파 중간 크기 3, 대파 5, 무 1/3, 다진 생강 1 큰술, 간장 ¼ 컵, 배 ¼, 다진마늘 2 큰술, 고추씨)

3. 동치미 재료: 배 ½ 개, 다진 마늘 1 큰술, 무 중간 크기 ½ 개, 대파 1개, 양파 ½ 개, 설탕 큰술 2 ½ (꿀로 대체해도 된다), 소금 큰술 2 ½, 생강 큰술 ½, 4. 고명재료: 식성대로 달걀, 배, 오이, 열무김치 등등, 식성에 따라 겨자, 식초를 곁들인다.

조리법

1. 동치미 만들기 a. 큰 그릇에 양파, 대파, 배, 무를 1x2 inch 크기로 썰어서 담은 후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소금, 설탕을 넣고 버무린다.
- b. a 에 물 10컵 (2400 cc) 을 3일 동안 상온에서 숙성시킨다.
- c. 숙성된 동치미 국물을 쓴다.

2. 육수 만들기

- a. 양지머리 고기와 사골을 찬물에 4 시간 동안 담가 핏물을 뺀다.
- b. 핏물이 빠진 고기는 채에 받쳐 물기를 뺀다.
- c. 물 35 컵이 끓을 때 고기와 뼈를 넣고 30 분 동안 센불로 끓인 후 무, 양파, 파를 넣고 다시 1시간 30분 동안 중간불에 끓인다.
- d. 고기와 뼈를 건지고 배 양파 무 파, 다진 마늘, 다진 생강, 간장을 넣고 30분동안 더 끓인다음 식혀 놓는다.
- e. d 를 채에 내려 육수를 낸다.
- f. 고기는 고명으로 쓰기위해 남겨둔다.

3. 냉면 육수 만들기 a. 동치미 8 컵과 육수 16 컵 (1:2)을 섞어 냉면 육수를 완성시킨다.

4. 냉면 사리 만들기 끓는 물에 마른 메밀면을 넣

Cold Noodle

더위를 식히는 물냉면



고 4분 정도 삶아 찬물에 비벼 헹구어 물기를 빼 놓는다.

5. 고명만들기 a. 고명은 기호에 따라 배, 고기, 오이, 당근 등을 납작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놓는다.
- b. 달걀은 삶아 반쪽으로 잘라 모양을 낸다.
- c. 열무김치를 고명으로 써도 좋다.



6. 상 차리기 냉면 사리에 고명을 얹고 냉면 육수를 붓고 살얼음을 띄워 상에 올린다.

박상신 기자

■ 여전도회 소식(밸리채플)

‘Smile’ 얼굴 가득 미소가 번져 나가요

주안예교회 밸리채플 여전도협의회(회장 안유은 권사)에서는 지난 5월 첫 주부터, 주일 날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를 드리는 “스마일 운동”을 하고 있다. 각 전도회 별로 순서와 담당자를 정해, 노랑과 예쁜 스마일 스티커를 성도님들 가슴에 붙여드리고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있다. 교회에 출석할 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이제는 반갑게 맞이하는 여전도회 성도

님들의 미소가 기분을 한층 좋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 더욱 은혜가 된다고 한다.

안유은 권사는 이번 스마일 운동을 통해 많은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또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도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면서 주안예교회가 하나 되는데에 여전도회가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



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제 곧 창립 3주년을 맞게 되는 주안예교회가 이러한 운동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미국과 온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중한 사역에 모두 함께 동참해 나갈 것을 기대해본다.

■ 알림: 이달 지면사정으로 주안에성경펴출 신지 못했습니다. 5월호 당첨자와 정답, 새 문제는 7월호에 게재하겠습니다.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밸리채플/ 1부 오전 8:45, 2부 11:45
LA채플/ 1부 오전 8:45, 2부 10:30
플러튼채플/ 1부 오전 9:15, 2부 11:45

영성 집회

수요영성집회/ 저녁 7:45 플러튼채플
목요코람데오예배/ 저녁 7:15 LA채플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LA채플/ 새벽 5:30(월-금)
플러튼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LA채플 LA Chapel
3460 Wilshire Blvd. Ste 700, Los Angeles, CA 90010
플러튼채플 Fullerton Chapel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담임목사 설교방송 안내
■ 크리스천 헤럴드TV(CH 18.88)
본방송: 매주(화) 7:00pm~7:45pm
재방송: 매주(토) 9:30am~10:15am
■ CTS 기독교TV방송(directv 2092)
본방송: 매주(월) 7:45pm~8:30pm
재방송: 매주(토) 1:00pm~1:45pm
■ 라디오서울(AM 1650) 매주 목 11:00~11:30pm

“주안에” 2016년 7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중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예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이광영(국장), 김산실, 나형철, 박창신, 박희정, 안경숙, 안덕문, 오병순, 오희경, 이하나, 조성운, 조용대, 채은영,(7자)
안동윤, 브라이언 조, 정인성, 김다솔 (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

UCOME AUTO SALES
새 차 • 중고차 • 매매 • 리스 • 좋은 보험 소개
자동차를 싸게 사실 수 있는
One Stop Shopping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박선우 / Paul Park
Cell: (213) 880-1267
p1267w@hanmail.net

AYCE GOGI
KOREAN BBQ
〈구 덕수장〉
7128 Van Nuys Blvd
Van Nuys, CA 91405
818-465-305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크리스찬 선물센터 기독교 종합백화점
성화, 성구약재,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개운, Tape, CD
대표 강병찬
TEL: (323)737-7699, (323)737-4526
FAX: (323)733-8850
Toll Free: (800)669-0451
인터넷 쇼핑물: www.koramdeo.com
E-mail: cbc0191@hotmail.com
영업시간 9:30AM~7:00P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사라택시
Sara Taxi
주정부허가업체
TCP 35881-B
Airport Permit #
LAX 11611242
(213) 408-6671
공항 • 일일관광 • 장거리 • 아울렛 • 통역 • 요세미티 • 세코야 • 샌프란시스코 • 팜스프링

성도님들의 사업에 도움을 드리고 교우 상호간 서로 돕기를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체 광고란을 마련했습니다. 광고비는 6개월 단위 \$150이며 광고수익은 선교 구제헌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 (323) 810-9853, iccnews123@gmail.com